

표지석 건립 등 능동성역화 사업 추진

능동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성 상임부회장)는 능동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로 입구에 시조 묘소 표지석을 새롭게 건립하였다. 이번에 소요되는 능동성역화 사업 추진비는 송암(松巖) 권오록 고문이 기증한 1억 원 중에서 집행한 것이다.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로 공사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능동재사가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민속문화재 주변 형상 변경을 하기 위해 서는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조 묘소 표지석 건립

지난 3월 28일 시조 태사공 묘소로 진입하는 진입로 입구에 시조 묘소 표지석을 새롭게 건립했다. 기존 표지석은 진입로 중간 지점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표지석으로 설치한 것이다. 새로 건립한 표지석의 크기는 표지석 둘 높이 2.7m, 받침돌 50cm



시조 묘소 표지석 건립



시조 태사공 묘소 환경 정비



남중공 묘역 정비



남중공 묘역 주변 소나무 식재

능동재사 시설 정비

능동재사는 춘추향제가 봉행될 때마다 향사를 준비하는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족친들로 늘 붐비는 안동권문의 재실이다. 족친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춘추향제 전날 대당회에 참석하면서 하룻밤을 묵곤 한다. 그러나 재실 각 방마다 아궁이에 나무펠감으로 불을 지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난방을 해 왔고, 재실에는 옷장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족친들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었다. 능동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번에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방문하는 족친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옷장과 이불 선반, 책장을 마련하였으며 전기장판을 새로 깔고 방문 창호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옷장



이불 선반



책장

권율 도원수 3대첩

贈 領議政·永嘉府院君·忠莊公·晚翠堂

증영의정 영가부원군 총장공 만취당

성균관成均館 전의典儀 겸 전례사典禮師 권정택 權貞澤



권율 도원수 동상(행주산성 내)



이치대첩비

니다. 장군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그 가부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공인이 천객(仁川客)과 함께 가서 형세를 보니 과연 포진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그곳이 바로 행주(幸州)였다. 그 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못 지략이 많을 듯하여 막하에 두고 작전 참모로 기용하였다.

“고군(孤軍)이 대적을 앞에 두고 아무런 방비가 없으니 이를 어찌할꼬?”

공이 그에게 물었다.

“스스로 성책할 길이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때마침 체찰사(體察使)가 양주(楊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을 불러 의론하게 되었는데, 공이 출장 가는 동안에 인천 객은 제군을 직접 지휘하여 불과 3일에 목체설치 작업을 완성하였다. 공이 제가 잘 사를 만나고 돌아와 이를 보더니 크게 기뻐하였다. 이즈음 왜적은 평양에서 조선의 순변사 이일과 별장 김응서가 명장이 여송과 합세한 연합군에게 패하여 한성부 근교로 후퇴, 조합할 때여서 군세가 자못 커졌다. 더구나 이 여송이 승기를 타고 계속 남으로 밀고 내려 왔다가 고양 벽제관(百濟館)의 여석령(醴石嶺)에서 대패(大敗)하니, 왜적의 사기는 매우 왕성해 있었다. 이여송은 대패한 후 파주(坡州)로 물러서더니 이내 평양까지 들어가 버렸다. 선조 26년(1593년) 계사 2월이었다. 평안도 함경도까지 올라갔던 왜적의 주력부대는 한성부 서쪽 20리 떨어진 행주 고지로 이동하였다.

특히 왜장들은 호남의 군사가 강을 건너왔다는 말을 두고 이치령 전투의 패배를 앙갚음하려고 단단히 벌렸으며, 길을 나누어 행군하는 병졸들 또한 기세가 등등하였고,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행주 고지 앞에 이르자 왜장 유희다.

수가는 조선군사의 수효가 적은 것을 보고, “저까짓 것은 발길으로 차서 넘어 드리겠다.”하고 호언장담하였다. 2월 12일 여명(黎明)의 공은 척후 장교로부터 적이 좌우익으로 나누어 흥백기를 들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공은 엄하게 명하여 제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적은 증전장성(增田長盛)의 부대 등 3만 대군이었다. 좌우익으로 갈라 저 흥백기 황금산(黃金峯)에 귀면수형(鬼面獸形)으로 분장한 모습의 무리가 앞에서 춤추는데, 이는 아군을 현혹시키는 수작이었다. 아군 진영에서 오리즘 떨어진 들판이 온통 적으로 가득 하였다. 아군은 이미 성책을 이중으로 죄조하였으며 포구(砲口)가 40개나 되는 화차(火車)와 척석기(擲石機)인 수차석포(水車石砲) 등을 장치하였고, 군사들은 횃가루 고춧가루를 담은 주머니까지 치고 일전을 결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무슨 일인고”
“소인이 한 가지 우견(愚見)이 있어서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앉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해 보아라.”
“용병지도(用兵之道)는 지리(地理)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근처에 일개 고지가 있는데 천연적인 요새지로서 수비하고 공격하기에도 지극히 적절한 곳입니다.”

아군 장수들이 모여 의론하는 자리에서 공은 “고립된 군사가 깊이 들어와서 갑자기 적 대군을 만나니 세력으로는 대적하기 어렵다. 만약 한목숨을 버리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홍창수 휘 억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0년 4월 30일이고
수단비[등록비]는 창수공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발간사무실: (우)087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5 천우빌딩 503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출구에서 150미터
팩스겸용전화 02-885-7776 e-mail kwon8857776@naver.com
간사 권병관 010-8869-2867 종보사 02)723-4480

안동권씨 창수공종회장 권병돈

(다음호에 계속)